

유발 하라리의 『호모 데우스』 바로 읽기

성의진

서론

2016년 1월, 세계경제포럼(WEF)의 주제가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해”로 열리고, 같은 해 3월에 구글의 알파고가 이세돌 9단을 4승1패로 누르고 승리하자 우리나라에서도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3차 산업혁명의 성숙국면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있지만, 요즘 일어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은 이전의 변화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인간의 육체를 대신하는 기술이 아니라 지능을 대신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가운데 인공지능, 자율주행자동차, 사물인터넷, 3D프린팅, 생명공학 등 새롭게 태어난 산업분야들은 성장세를 멈추지 않고 있다. 이런 시기에 유발 하라리(Yubal Noah Harari, 1976~)¹⁾의 『호모 데우스(Homo Deus)²⁾』가 출간된 지 불과 몇 달 만에 세계적인 이목을 끌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 물론 그중에는 단지 무게감 있어 보이는 책을 들고 다니길 좋아하는 이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걱정에서 책을 집어들었을 것이다. 『호모 데우스』는 역사적 통찰에 기반을 두고 과학과 철학 등 여러 학문의 경계를 넘나들며 인류의 미래를 조망한다. 이 책은 기술발달에 따른 인공지능시대가 오는 것이 역사적인 필연이기 때문에 앞으로 인류가 어떤 선택을 내리는지에 따라 미래가 유토피아 또는 디스토피아 둘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말한다. 또 제목에서처럼 과학기술을 등에 업은 인류가 신으로 진화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이 벌써 진행되고 있는 지금, 이 글에서는 유발 하라리의 『호모 데우스』를 살펴보고 비판함으로써 우리가 인공지능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생각해보려고 한다.

1. 『호모 데우스』의 세계

『호모 데우스』는 서론에 해당하는 제1장에서 인류의 미래를 그려보고, 그러한 예측이

- 1) 이스라엘 하이파에서 태어나 2002년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중세 전쟁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교에서 역사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고, 역사와 생물학의 관계, 호모 사피엔스와 다른 동물과의 본질적 차이, 역사의 진보와 방향성, 역사 속 행복의 문제 등 광범위한 질문을 주제로 한 연구를 하고 있다. 2009년과 2012년에 인문학 분야 창의성과 독창성에 대한 ‘폴론스키 상’을 수상했고, 2011년 근대 역사에 관한 논문을 인정받아 ‘몬카도 상’을 수상했다. 저서로는 『사피엔스』와 『호모 데우스』 등이 있다.
- 2) 유발 하라리, 『호모 데우스』, 김명주 역, (김영사, 2017). Homo는 ‘인간’, Deus는 ‘신’을 뜻한다. Homo Deus는 ‘신이 된 인간’으로 번역할 수 있다.



이 문서는 라브리공동체 웹사이트 자료실에서 내려받은 것으로, 저작권은 글쓴이에게 있으며 개인 및 그룹 공부를 위해서만 인쇄 및 소량 배포할 수 있습니다. 내용은 라브리의 공식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This document was downloaded from the online library of L'Abri Fellowship Korea. All copyright belongs to the author. Printing, copying and small-scale distribution are permitted only for personal and group study. L'Abri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is document.

라브리공동체 / 강원도 양양군 서면 구룡령로 3025
☎ (+82) 033-673-0037 ✉ yangyang@labri.kr

www.labri.kr

역사를 기반으로 한 것임을 고려하여 시간을 되짚어 호모 사피엔스가 어떻게 다른 동물들과 다른 종이 되었고, 어떤 세계관을 만들어 나갔으며, 현재 우리 앞에 놓인 어려움은 무엇일지로 논의를 전개해나간다. 아래에서는 우선 『호모 데우스』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보도록 하자.

1) 인류의 새로운 의제

오늘날 인류의 의제는 무엇인가? 하라리는 그동안 인류를 괴롭혀온 기아, 역병, 전쟁은 더 이상 우리의 적이 아니라고 말한다. 시장경제가 발달하면서 사람들은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어 굶어죽지 않는다. 가장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도 전에는 기대조차 못하던 높은 수준의 삶을 누리게 되었다. 과거에는 죽음의 병으로 알려졌던 많은 질병이 지금은 치료할 수 있게 되었거나 만성질환으로 그 장르가 바뀌었다.³⁾ 한때 전쟁은 땅을 정복하고 부를 축적하는 수단이었지만, 지식이 가장 중요한 경제적 자원이 된 현대사회에서는 더 이상 부를 쌓는 좋은 방법이 아니다.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첨단기업들은 서로 경쟁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다른 기업들과 협력하여 연간 수십억 달러의 수익을 거두어들인다. 물론 기아, 역병, 전쟁은 분명 앞으로는 많은 사람들을 해치는 원인이 될 것이다. 하지만 오늘날 이 문제들은 더 이상 인류가 이해할 수 없거나 통제하지 못하는 신비로운 일이 아니다. “이 문제들은 관리할 수 있는 난제가 되었다.”⁴⁾ 인류가 해결해야 할 정말 중요한 과제는 “우리 자신의 힘에 내재된 위험들로부터 인류와 지구를 보호하는 것이다.”⁵⁾

우리가 스스로를 파괴하고 있다는 증거 중 하나는 21세기 들어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많이 먹어서 죽는 사람이 먹지 못해 죽는 사람의 수를 넘어섰다는 사실이다. 2012년 전 세계 사망자 수는 5600만 명이었는데, 이 가운데 62만 명이 폭력으로 죽었다. 반면 80만 명이 자살했고, 150만 명이 당뇨병으로 죽었다. 그리고 2009년의 한 자료에 따르면 비만과 그 관련 질환으로 사망한 사람은 무려 300만 명에 이른다. “현재 설탕은 화약보다 위험하다.”⁶⁾

하지만 하라리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인공지능과 생명공학의 발달이라고 말한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이 두 분야만큼 인류가 더 경계해야 할 대상은 없다. 미래사회에서는 인공지능이 인간의 신체노동력을 넘어 지능마저 대체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일반 사무직부터 판사, 변호사, 의사, 교사, 정치인마저도 이를 피할 수는 없다. 수십 만 명이 일하는 기업에서도 인공지능을 관리할 단 몇 명의 관리자만 필요로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거리로 몰려나오는 동안 인공지능을 보유한 기업과 소수의 엘리트들은 더 많은 부를 축적하게 될 것이다.

생명공학이 보여주는 미래는 더욱 비관적이다. 지금까지 생명공학은 주로 의료기술을 발전시키고 다친 사람을 고치는 일에 초점을 두었지만, 앞으로는 건강한 사람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사용될 여지가 크다. 이미 연구실에서 탄생한 나노로봇은 언젠가 우리의 혈관을 누비며 병원균

3) 하라리는 현대의 대표적 불치병인 에이즈 사망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점과, 최근에 있었던 사스와 에볼라 바이러스를 인류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했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그리고 2015년에 의사들이 어떤 박테리아도 내성을 갖지 못한 완전히 새로운 유형의 항생물질인 ‘테익소박틴(Teixobactin)’을 발견함으로써 수십억 년 동안 우리의 적이었던 미생물들이 이제 인류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린다. “미생물들은 40억 년간 유기체 적들과 싸운 경험을 축적했지만, 생체공학 포식자와 싸운 경험은 전무하다.” 유발 하라리, 같은 책, p.29.

4) 유발 하라리, 같은 책, p.37.

5) 유발 하라리, 같은 책, p.38.

6) 유발 하라리, 같은 책, p.32.

과 암세포를 죽여 수명을 획기적으로 늘려줄 것이고, 신체에 유전자키트와 인공지능을 접목시켜 우리의 체력과 지능을 업그레이드시킬 것이다. 하라리는 이 모든 일이 값비싼 기술을 소비할 수 있는 소수의 엘리트들부터 시작될 거라는 점에서 현재의 빈부격차를 능가하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인간적 격차'가 일어날 수도 있음을 우려한다. 그는 생명공학으로 얻은 월등한 신체와 뛰어난 지능을 가진 신인류가 호모 사피엔스를 대할 방식은 마치 지금의 우리가 동물을 대하는 것과 비슷할 것이라고 주장한다.⁷⁾

하라리는 이 문제가 다른 무엇보다 심각한 이유는 누구도 그 흐름을 멈추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한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더 나은 삶과 행복, 나아가 영생을 추구한다. 하지만 인간은 행복한 상태보다는 생존과 번식, 즉 진화에 유리하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그런 이상을 온전히 성취하기란 불가능하다. 그런데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끊임없는 무한대의 성장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인류를 신으로 업그레이드하고, 호모 사피엔스를 호모 테우스로 완전히 재설계하는 장대한 목표는 사람들의 도전의식을 자극하기에 충분한 이유가 된다. 누구도 인간의 이기심을 통제할 수는 없다. 인류는 그 종착역이 어딘지도 모른 채 역사의 흐름에 실려 가고 있다.

2) 인류라는 존재의 특수성

하라리가 '인류세(the anthropocene)' 또는 '인간의 광휘(the human spark)'라고 명명하는 인간이 지구환경에 미친 가공할 영향력은 인류의 존재적 특수성을 보여준다. 지금까지 어떤 동식물도 인간만큼 높은 수준의 진화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 대체 인류는 어떤 방법으로 다른 종들을 물리치고 세계를 정복할 수 있었을까? 이러한 물음에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뛰어난 지능과 도구를 만들어 사용하는 능력 덕분이었다고 답한다. 초월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영혼과 의식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모두 그럴듯하게 들린다.

하지만 하라리가 볼 때 이중 어느 것도 인간을 특별하게 만들지는 못한다. 먼저 지능과 도구 능력을 살펴보자. 이런 능력은 흔히 생각하는 것과 달리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능력이 아니다. 어떤 동물들은 어린이보다 훨씬 높은 지능을 가지고 있다. 도구를 만들어 실생활에 응용할 줄 아는 동물들도 드물지만 분명 있다. 인간의 지능과 도구능력은 단지 동물보다 조금 더 훌륭한 형태로 개량된 것일 뿐이다. 영혼과 의식도 다르지 않다. 근대 과학혁명은 인류가 그동안 알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알려주었다. 그중에서도 생물학과 신경학은 지난 몇 십 년 동안 엄청난 성과를 거두고 있는 분야다. 그리고 이들 과학자들은 우리 몸속 구석구석을 면밀히 살펴본 결과 그 어디에서도 영혼이라는 기관은 찾지 못했다고 보고했다. 또 일련의 실험에 따르면 우리가 의식이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 생화학적 기제가 작용하면서 뇌의 명령이 신경을 타고 오르내리는 것을 지칭하는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 인간에게 영혼이나 의식이라는 특수기관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라리는 우리가 적자생존의 자연환경 속에서 살아남았다는 사실에서 인류의 특수성을 찾을

7) 하라리는 독일 나치가 신봉했던 진화론적 인본주의에서 실마리를 얻는다. 나치의 우생학과 홀로코스트는 인류 역사에서 지울 수 없는 끔찍한 역사였지만, 이미 소수의 엘리트들이 가장 먼저 그들의 신체를 업그레이드해 나머지 사람들보다 뛰어난 존재가 되려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진화론적 인본주의의 모습과 흡사한 것으로, 그는 21세기에는 진화론적 인본주의가 이전 어느 때보다 더 큰 역할을 하게 될 거라고 예상한다. 유발 하라리, 같은 책, pp.350~356.

수 있다고 말한다. 그는 인류가 다른 종을 물리치고 결정적인 우위를 점할 수 있었던 까닭은 우리의 상상 속에 존재하는 허구적 개념, 즉 신, 국가, 법, 돈과 같은 것들을 믿는 능력을 바탕으로 한 ‘대규모의 유연한 협력’ 덕분이었다고 주장한다. 개미와 벌도 집단적으로 협력하지만, 하루아침에 사회제도를 개혁하거나 여왕벌을 단두대에서 처형하고 공화국을 세우지는 못한다. 사피엔스만이 수많은 낯선 사람들과 유연하게 협력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지구라는 행성을 정복한 이유는 불멸의 영혼이나 어떤 특별한 종류의 의식이 아니라 바로 이 구체적 능력 덕분이다.”⁸⁾

3) 인류를 지배하는 거대한 상상력

이처럼 호모 사피엔스는 자신의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허구를 바탕으로 유연하게 협력함으로써 세계를 정복할 수 있었다. 그러면 이제 지난 수천 년 간 인류를 지배해온 허구가 무엇이었는지 살펴볼 차례다. 하라리는 서양역사가 두 가지 강력한 허구적 개념이자 일종의 ‘종교적 이념’을 따라 흘러왔다고 말한다. 첫째는 고대부터 근대까지 사람들의 정신을 지배한 ‘성경’이고, 둘째는 근대 이후 오늘날까지 사람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인본주의’다.

먼저 성경은 신이 세상을 만들었고 인간은 신의 피조물이므로 신성하고 존귀한 존재라고 말한다. 사람들은 오랫동안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신의 존재와 율법에 대한 공통된 믿음을 공유했다. 고대문화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제사의식은 자신의 수확물을 신과 공유하는 일종의 계약으로, 성경과 같은 유신론 종교가 번성한 시기가 역사적으로 농업혁명이 일어난 시점과 비슷하다는 사실을 미루어보면 허구적 개념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알 수 있다. 종교는 사람들을 단결시켰고, 그로 인해 일어난 농업혁명은 사람들 사이의 협력망을 다시 한 번 확대하고 강화시키는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비록 성경은 오류이긴 했지만, 대규모 협력을 위한 더 나은 토대를 제공했다. ... 그래서 성경이 거짓임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남아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 오늘날에도 미국 대통령들은 성경에 손을 얹고 취임선서를 한다. 허구, 신화, 그리고 오류가 넘쳐나는 책에 대고 진실을 말할 것을 맹세하다니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다.”⁹⁾

근대에 이르러 돈과 문자가 발달하고 사람들의 협력망이 점점 강화되면서 마침내 과학혁명이 일어났다. 과학혁명은 사람들에게 자연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을 주었다. 과학은 사람들이 질병을 치료하고, 식량생산을 늘리며, 무기를 개량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절대적인 힘을 안겨주었다. 인간은 더 이상 천둥과 번개를 보고 신의 분노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고, 그동안 간직했던 신에 대한 의미도 한순간에 잃어버렸다. 그리고 성경을 대신할 또 다른 허구적 개념, 인본주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인본주의는 세상의 모든 의미와 권위의 원천이 인간에게 있다고 말한다. 자유의지를 가진 개인은 인권의 존엄성을 보호받고 누릴 권리가 있으며, 개인이 체험하는 삶의 모든 경험이 소중하다. 개인의 자유, 인간의 권리, 사생활의 존중과 같은 인본주의의 핵심가치는 자유의 날개를 타고 전 세계로 뻗어나갔다. 그리고 그 이념대로 역사상 누구도 시도하지 못했던 기아, 역병, 전

8) 유발 하라리, 같은 책, p.188.

9) 유발 하라리, 같은 책, p.242.

쟁과 같은 난제들을 성공적으로 해결했으며, 이 새로운 종교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갔다. 인본주의에는 자유주의 인본주의, 사회주의 인본주의, 진화론적 인본주의가 있지만, 세 가지 모두 인간을 숭배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현재의 승자는 자유주의 인본주의이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신흥종교가 세상을 영원히 지배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다.¹⁰⁾

하라리는 인본주의가 어째서 허구일 수밖에 없는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비판한다.

첫째, 인본주의는 개인의 경험에 절대적인 권한을 부여하지만, 서로 다른 개인의 의견이 충돌할 때 해답을 제시하지 못한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공정하게 여기는 일도 다른 누군가에게는 불공정하게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인본주의는 이 둘의 감정이 모두 ‘옳다’는 식의 엉뚱한 답을 들려준다. 불완전한 인간에게 모든 의미와 권위를 부여하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이었다.

둘째, 최근 신경학 분야에서 밝혀지고 있는 새로운 연구결과들은 인본주의의 가정이 오류라는 사실을 증명해준다. 신경학자 벤저민 리벳(Benjamin Libet, 1916~2007)은 그의 자유의지 실험에서 손가락을 구부리는 행위를 관찰한 결과, 피실험자들이 손가락을 움직이려고 결심하기 약 0.5초 전에 뇌에서 ‘준비전위(readiness potential)’라는 전기신호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또 뇌 MRI를 촬영 중인 환자에게 여러 장의 그림을 보여주고 마음에 드는 그림을 선택하라고 했을 때 의사들은 환자가 그림을 선택하는 순간으로부터 약 5~7초 전에 이미 어떤 그림이 선택될지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실험결과는 우리가 의지를 발휘하기에 앞서 뇌가 행동을 결정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다. 의지는 행동의 원인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다는 인본주의의 가정은 허상이다.

셋째, 인본주의의 또 다른 중요한 가정은 인간이 독립적인 자아로 이루어져 있고 나 자신에 대해서는 나 스스로 가장 잘 알 수 있다는 믿음이다. 하지만 최근 발표되고 있는 유전공학과 생명공학 이론들은 이런 가정을 뒷받침하지 않는다. 이들 이론에 따르면 유기체는 알고리즘이고, 인간은 알고리즘의 집합이므로 얼마든지 개별 알고리즘으로 분리될 수 있다. 그리고 개별 알고리즘은 유전자와 외부환경에서 영향을 받으므로 결코 자유롭다고 볼 수도 없다. 다음으로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외부 알고리즘이 점점 정교해지면서 이제는 기계 알고리즘이 우리를 우리보다 더 속속들이 알게 되는 단계에 이르렀다. 구글은 내가 장바구니에 물건을 담기도 전에 나의 과거 검색기록과 구매패턴을 분석해 내가 다음 번 인터넷 쇼핑에서 주문할 물건을 알 수 있다. 페이스북의 ‘좋아요’ 기능을 추적하면 사용자들이 다음 번 대통령 선거에서 어떤 후보에게 표를 던질지 친구, 가족, 심지어 그들 자신보다 더 정확하게 맞출 수 있다. 이처럼 인간은 독립적인 존재도 아니고 자기 자신에 대해 가장 잘 아는 존재도 아니다. 따라서 인본주의는 틀렸다.

그럼에도 하라리는 역설적으로 이런 허구적 개념이야말로 인간 사회를 움직이는 토대이자 기둥이라고 말한다. 인간은 허구 없이는 살 수 없다. 허구적 개념 없이 뇌 활성화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윤리적 딜레마는 세상에 거의 없을뿐더러,¹¹⁾ 사람들이 삶에서 의미를 찾지 못한다면

10) 민주주의 체제 아래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자유주의 인본주의의 분야별 가르침은 다음과 같다. 자유주의 정치는 유권자가 가장 잘 안다고 믿는다. 자유주의 예술은 아름다움은 보는 사람의 눈에 달려 있다고 주장한다. 자유주의 경제는 고객이 항상 옳다고 주장한다. 자유주의 윤리학은 좋게 느껴지면 하라고 조언한다. 자유주의 교육은 모든 답이 자기 안에 있으니 스스로 생각하라고 가르친다. 이처럼 인본주의에서 지식을 획득하는 유일한 방법은 경험(감각, 감정, 생각)과 감수성(경험의 수용)을 종합하는 것이다. 유발 하라리, 같은 책, p.343 인용 및 참조.

11) “예를 들어 고문과 강간이 뭐가 문제인가? 순수하게 신경학적 관점에서 보면, 한 인간이 고문이나 강간을 당하면

유연하게 협력하는 능력이 무뎌져 결국 진화과정에서 도태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경과 인본주의가 거짓말이더라도 그것을 쉽게 버릴 수는 없는 것이다. 역사가 전개되면서 허구적 개념들은 점점 더 힘을 길러 객관적 실재를 지배하게 되었다.¹²⁾

4) 데이터주의¹³⁾와 인류의 위기

하라리는 성경의 한계로 인본주의가 등장했듯이 인본주의의 한계가 새로운 허구적 개념을 요구하게 될 것이라고 본다. 그는 지금과 같은 추세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이 계속 발달하면 미래에 등장하게 될 허구는 단 하나밖에 없다고 말한다. 바로 역사의 대기실에 앉아 면접을 기다리고 있는 ‘데이터주의(dataism)’다. 데이터주의는 “우주가 데이터의 흐름으로 이어져 있고, 어떤 현상이나 실체의 가치는 데이터 처리에 기여하는 바에 따라 결정된다”¹⁴⁾고 보는 개념으로, 이들에게 “신은 인간 상상력의 산물이지만, 인간 상상력은 생화학적 알고리즘의 산물”¹⁵⁾에 불과하다.

데이터주의에서 개인은 데이터를 구성하는 하나의 칩이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더 이상 막대한 데이터의 흐름을 감당할 수 없다. 이제 정보를 분석하고 지식과 지혜를 증류하는 일은 빠르고 정확한 전자 알고리즘에게 맡겨진다. 전자 알고리즘은 단순히 연산능력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곧 스스로를 개량하고 자기보다 더 나은 알고리즘을 창조해내는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다. “데이터주의는 새롭고 간단한 답을 제시한다. 인간의 경험은 그 자체로는 동물의 경험보다 나은 것이 없다. 데이터 조각의 가치는 어느 것이나 같다. 하지만 인간은 자신의 경험을 온라인에 게재할 수 있고, 전 지구적 데이터 처리 시스템을 풍성하게 한다. 이것이 인간의 데이터 조각들을 중요하게 만든다. 우리는 자신이 여전히 가치 있다는 것을 시스템에 증명해야 한다. 그리고 가치는 경험이 아닌 경험을 데이터로 전환하는데 있다.”¹⁶⁾ 이 새로운 종교적 교리에 따르면 인간을 포함한 모든 정보는 컴퓨터와 인공지능이 이해할 수 있는 수학적 데이터로 환원되어 전체의 데이터처리에 기여하는 것만이 그것이 존재하는 타당한 목적이 되어야 한다.¹⁷⁾

나아가 이들은 인공지능을 두뇌에 접목시켜 인간의 지능과 감정을 업그레이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인공지능의 도움으로 기능이 향상된 두뇌는 강력한 판단력과 집중력을 발휘할 것이고,

뇌에서 특정한 생화학적 반응들이 일어나고, 다양한 전기신호들이 한 뉴런에서 다른 뉴런으로 이동한다. 그게 뭐가 문제일까?” 유발 하라리, 같은 책, p.167. 여기에는 옳고 그름을 떠나 어떤 일말의 의미조차 없다.

12) 성경과 인본주의 외에도 허구적 개념과 그 한계로 하라리가 언급하는 몇 가지 개념을 들면 다음과 같다. 유발 하라리, 같은 책, pp.256~261 (이원론), pp.271~274 (공리주의), pp.285~305 (자본주의), pp.354~356 (나치즘), pp.370~384 (이슬람교, 힌두교, 유교, 사회주의, 마르크스주의, 레닌주의), p.418 (천주교). 그는 인본주의를 논하면서 리처드 도킨스, 샘 해리스, 스티븐 핑커 같은 진화론자들도 모두 틀렸다고 비판한다. 유발 하라리, 같은 책, pp.272, 419.

13) 『호모 테우스』 한국어 번역판은 ‘dataism’을 ‘데이터교’로 번역하고 있지만, 이 글에서는 다른 사상들의 명칭과 통일성을 살리기 위해 ‘데이터주의’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14) 유발 하라리, 같은 책, p.503.

15) 유발 하라리, 같은 책, p.534.

16) 유발 하라리, 같은 책, p.530.

17) 하라리는 데이터주의가 이미 과학계 전반을 정복했다고 본다. 실제로 지금 인터넷에 접속하고 있는 전 세계 수많은 유저들(특히 20대 이하 사용자)은 자신의 일상을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등을 통해 공유하는 일에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투자한다. 그리고 소셜네트워크들은 사용자들이 서버에 업로드하는 데이터를 분석해 그들이 자신들의 수익에 기여하는 가치를 평가한다. 한 연구에 따르면 페이스북 회원 1명은 평균 5달러의 가치가 있으며, 활발하게 활동하는 회원일수록 더 높은 가치를 갖는다.

우리의 불안한 감정도 상황에 알맞게 조정해줄 것이다.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는 인본주의의 권고는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망쳤지만, 생명공학은 약간의 기계장치와 약물 몇 방울만으로 우리의 생화학적 기제를 통제하고 더없이 유쾌한 경험을 제공할 것이다.

컴퓨터 알고리즘이 우리보다 우리 자신을 더 잘 알아가고 있다는 점에 착안한 데이터주의자들은 이렇게 조언한다. “나를 완벽하게 알고 어떤 실수도 하지 않는 알고리즘까지 갈 필요도 없다. 그저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실수를 덜 하는 알고리즘이면 충분하다. 그 정도면 알고리즘에게 나에게 관한 점점 더 많은 결정과 인생의 선택들을 맡기기에 충분할 것이다. 알고리즘은 우리를 위해 유익한 결정을 내려줄 것이고, 그러므로 그 조언을 따르지 않는 것은 미친 짓일 것이다.”¹⁸⁾ 이것은 시작일 뿐이다. 미래에는 우리의 두뇌를 컴퓨터에 다운받아 신체 없이도 저장매체 속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될 거라고 진지하게 믿는 사람들도 있다.

하라리는 다시 책의 처음 내용으로 돌아가 데이터주의라는 새로운 종교가 부흥할 때 인류가 처하게 될 위기에 대해 이야기한다. 만일 데이터주의의 교리대로 인류의 영원한 과제였던 행복과 영생을 실현할 수 있는 기술이 나온다면, 먼저 기술을 소유한 소수 엘리트층과 나머지 사람들 사이에 유래 없는 빈부격차가 발생할 것이고, 생명공학의 도움으로 탄생한 신인류가 현생인류를 동물처럼 취급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들 엘리트들마저도 결국은 데이터망을 구성하는 컴퓨터칩의 운명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하라리는 이 과정에서 민주주의와 자유시장의 지휘권 역시 사람에게서 네트워크 알고리즘으로 넘어가게 되고, 인류가 인공지능에 의해 조종당하거나 심지어 제거당하는 공상과학 소설에서만 보던 일이 우리 눈앞에서 실제로 벌어질 수도 있다고 말한다. 우리는 머지않아 “개인의 자유의지를 전혀 허용하지 않는 엄청나게 유용한 장치들, 도구들, 구조들의 홍수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¹⁹⁾

하라리는 이 모든 예상을 하나의 가능성으로 받아들일 것을 당부하지만, 지금까지의 역사와 현시점의 여러 경향들을 고려할 때 앞으로 데이터주의가 현실을 지배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한다. 그는 현재로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른다고 솔직하게 고백한다. 하지만 인류가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호모 사피엔스를 호모 데우스로 진화시키고자 한다면, 기술발전에 대해 개인과 사회, 그리고 국가를 넘어 인류전체가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함을 제언한다.

2. 『호모 데우스』의 통찰력

1) 역사의 흐름을 주도하는 세계관

하라리는 그의 전작 『사피엔스』에서 제시했던 역사적 관점을 『호모 데우스』에도 그대로 적용한다. 그는 역사가 거대한 세계관에 의해 움직인다는 견해를 관철시킨다. 이는 사람들의 행동은 그들의 생각을 반영하고, 생각은 일정한 사상을 반영하며, 그러한 사상은 거대한 세계관의 토대 위에 서있다는 철학적인 관점과 일치하는 것이다. 이런 하라리의 관점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부분은 그가 모든 세계관을 ‘허구’로 본다는 점에 있다. 물론 그가 ‘허구’라고 부르는 모든 개념들

18) 유발 하라리, 같은 책, p.457.

19) 유발 하라리, 같은 책, p.419.

이 정말로 거짓말만 가득한 이야기인지는 좀 더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역사를 세계관의 변화라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그의 견해가 역사를 현상이 아닌 본질로 판단하는 통찰력 있는 시각을 제공해준다는 점은 분명하다.

2) 인본주의 비판

인본주의가 인류에게 가져다준 가장 값진 선물은 인간이 존엄한 존재라는 인식이다. 하지만 하라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이유에서 인본주의가 사실이 아닌 허구라고 비판한다: 첫째, 의미와 권위의 원천이 인간에게 있다는 인본주의 교리는 서로 다른 개인의 감정이 충돌하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둘째, 행동의 원인은 의지가 아닌 뇌에 있으므로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다는 믿음은 허상에 불과하다. 셋째, 인본주의의 가정과 달리 인간은 비독립적인 알고리즘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내가 나 자신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본주의를 철썩 같이 믿고 있다는 사실을 미루어볼 때 하라리의 비판은 충격적인 것이다. 그러나 인본주의의 약점과 헛된 희망에 대한 그의 지적은 지금까지 인본주의를 공격했던 다른 어떤 입장보다 신선하고 정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인본주의를 비롯한 거짓된 사상들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해악을 끼치고 인류의 진보를 막는 방해물이었다는 것을 하라리는 역사적 사실들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준다. 그는 우리가 당연하게 믿고 있는 신념이 사실은 망상에 불과하지는 않은지 끊임없이 질문해볼 것을 주문한다.²⁰⁾

3) 데이터주의에 대한 경고

데이터주의에 대한 하라리의 예측은 4차 산업혁명을 눈앞에 둔 우리에게 붉은 경고등이 된다. 그는 인공지능과 생명공학이 고도로 발달하게 될 미래가 모든 사람이 행복하기만 한 세상 아니라고 경고한다. 기술진보는 분명 우리에게 전에 없이 편리하고 안락한 환경을 제공하겠지만, 동시에 대량실업, 유래 없는 빈부격차, 그리고 인간의 존립을 위태롭게 만들 정도로 심각한 위기를 불러일으킬 위험성도 함께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인간의 지능을 기계적 알고리즘을 대체하려는 시도가 이미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하라리는 새로운 기술이 인류에게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그러한 위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기술을 신중하게 사용할 필요성을 대두시키고 있다.

3. 『호모 데우스』의 한계

1) 허구라는 또 하나의 거짓말

하라리는 인류의 역사가 허구적 개념 위에 기초한 것으로 본다. 사람들은 종교와 사상을 만들어 그것에 스스로 종속됨으로써 삶에 의미를 부여하지만, 이 모든 것은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이야기, 즉 거짓말이라는 것이 그의 주장의 핵심이다. 그런데 그가 세상을 바라보고 역사를 조

20)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믿는 종교가 틀렸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 같은 종교를 믿고 싶어 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이다. 이는 '인지부조화(cognitive dissonance)' 때문이다. 인지부조화란 자신의 태도와 행동이 모순될 때, 태도를 바꾸는 대신 행동에 일치하도록 태도를 바꾸는 것을 말한다. 즉, 자신의 비합리적인 신념을 '합리화'시키는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유발 하라리, 같은 책, pp.411~419를 참조할 것.

망하는 방식을 살펴보면, 그의 통찰이 유물론과 진화론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실제로 『호모 데우스』는 인류의 역사책 위에서 일어난 모든 사건을 유물론과 진화론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렇다면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그가 믿는 유물론과 진화론은 허구가 아니라는 보장이 있는가 하는 것이다. 사회의 구조를 설명하는 수많은 개념들이 허구임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개념만이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태도는 적절한가? 우리가 매일 보고, 듣고, 느끼는 사랑, 가족, 결혼, 법, 민주주의, 기업, 돈, 그밖에 수많은 개념들이 모두 우리 머릿속에서 나왔고 세상에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들이라면 유물론과 진화론도 마찬가지로 아닐까?²¹⁾

모든 사람들이 학자가 책상에 앉아 생각하는 것만큼 무지하지는 않다. 허구적 개념은 어쩌다 우연히 인류를 지배하게 된 것이 아니다. 인간이 추상적이고 초인적인 개념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것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을 뿐 아니라, 그것이 객관적인 사실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하라리의 말처럼 모든 허구가 사실을 온전하게 반영한다고는 볼 수 없다. 거짓으로 가득한 허구적 개념들이 인류에게 가져온 불행은 누구도 부정하기 어렵다. 하지만 그중에는 일정 부분, 또는 상당한 면에서 논리적이고 현실적인 개념도 있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곤란하다. 예를 들어 유물론은 우리에게 물질세계를 파악하는 좋은 지도를 제공해준다. 유물론을 통해 우리는 사회의 수많은 현상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다. 또 진화론은 어떤가? 진화론의 위대함은 현재까지 발표된 어떤 과학이론보다 자연현상을 더 설득력 있게 설명한다는 점에 있다. 그런데 이 두 이론만으로 세계의 모든 것을 온전하게 설명하기는 어렵다. 그러면 유물론과 진화론은 완전히 잘못된 이론으로 매도당해야 하는가? 하라리의 견해를 충실하게 따른다면 ‘그렇다’고 해야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실제로는 매우 어렵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결국 모든 허구적 개념이 거짓이라는 하라리의 주장은 그렇게 말하는 자신의 주장 역시 허구로 만들어 버리는 논리적인 모순을 안고 있는 것이다.

2) 비판 근거 부족

자신의 전문분야가 아닌 주제를 논의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해당 분야의 연구 자료를 정확하고 공정하게 다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 분야 안에서도 얼마든지 다양한 의견과 주류 및 비주류 이론들이 섞여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공교롭게도 하라리는 자신의 논증을 유리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이론만 차용해 결과적으로 그의 논리를 위태롭게 만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라리가 주된 비판의 대상으로 삼는 성경과 인본주의를 살펴보자. 먼저 그는 성경을 비판하기 위해 많은 지면을 할애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그러한 논의의 대부분이 성경과는 본질적으로 아무런 관련이 없는 내용이다. 그는 중세시대에 교황이 일으킨 십자군 전쟁, 면죄부 판매, 그리고 십일조 강요를 여러 차례 언급하며 성경을 비판한다. 하지만 이것은 500년은 늦은 뒷북인데, 왜냐하면 종교개혁(reformation)을 일으킨 마틴 루터(Martin Luther,

21) 하라리는 종교를 “인간의 사회구조에 초인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어떤 것”으로 정의한다. 유발 하라리, 같은 책, p.252. 그에게 종교란 기독교, 이슬람교 같은 전통적 종교 외에도 나치즘, 인본주의, 데이터주의도 포함된다. 이 관점에 따르면 어떤 종류든 사회구조를 초인적으로 설명하는 사상체계는 종교에 해당하지만, 그의 논의에서 과학자는 종교가 없는 유일한 인종이다. 하지만 과학과 종교의 관계를 연구한 미국 사상가 이안 바버에 따르면, 과학적 자료는 사상과 무관한 것이 아니다. 과학이론도 일종의 신념체계이므로 특정한 사상을 반영하며, 그러한 사상은 과학의 속성과 해석방법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1483~1546)를 포함한 그 이전과 이후의 수많은 학자들, 그리고 현대의 최신 연구들은 당시 교황의 명령이 성경의 가르침에 어긋나는 잘못된 행위였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성경학자들에 따르면 그것은 단순히 성경의 가르침을 잘못 해석하는 수준을 넘어 비윤리적이기까지 한 것이었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근대 이후 성경이 사람들에게 아무런 창조적 자극을 주지 못하는데도 계속해서 권위의 원천으로써 자리를 지키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비판 역시 과학혁명 시대를 살았던 과학자들이 성경의 세계관을 바탕으로 자연탐구에 대한 근거를 얻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²²⁾

다음으로 하라리는 인본주의를 비판하면서 뇌와 의지의 관계를 연구한 리벳의 자유의지 실험을 인용한다. 그는 이 실험이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다는 믿음이 완전한 허구였음을 증명해주는 결정적인 증거라고 말한다. 그런데 정작 실험을 진행했던 벤저민 리벳은 자신의 작은 과학실험이 자유의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는 사실을 언급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우리 뇌 속에서 추론과 숙고 및 의사결정이 지속적으로 일어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인간의 의식이 마냥 뇌의 생화학적 기제를 따라간다고보다는 전반적인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요소라고 주장하지 못할 이유도 없다.²³⁾ “현재까지 인간의 의식이 뇌의 신경적 작용을 따라가는 거라고 결론내릴 수 있는 타당한 근거는 발견되지 않았다.”²⁴⁾ 그럼에도 아직 증명되지 않은 이론을 곧 증명될 것처럼 간주하고 그것을 정상과학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모습은 마치 과학주의²⁵⁾를 연상시킨다고 하겠다.

3) 데이터주의의 함정

하라리를 포함해 많은 사람들이 컴퓨터가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는 순간 인간은 가치를 잃어 버리게 될 거라고 우려한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점은 컴퓨터가 사람과 같은 수준에 도달했거나 곧 사람을 능가하게 될 거라는 막연한 위기감이 아니다. 컴퓨터에게 따라잡힐 만큼 ‘인간성’의 기준이 추락했다는 것이 더 근본적인 문제이다.”²⁶⁾

인간의 가치가 급격히 추락하게 된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근대 유물론에 있다. 세계를 물질로

22) 과학혁명 초기의 과학자들은 합리적인 신이 우주를 창조했다면 피조물인 인간이 우주를 이해할 수 있다는 성경적 세계관을 믿었고, 실제로 서양은 이를 바탕으로 폭발적인 과학적 성과를 이루었다. 한편 같은 시기 동양은 서양만큼 과학이 발달하지 못한 까닭으로 새것을 거부하고 옛것을 계승하는 유교문화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 특히 한국의 경우 성리학이 들어오면서 학문적 성과가 크게 제한되었다는 사실을 미루어 본다면, 세계관이 과학연구에 중요한 지침을 제공한다는 관점은 설득력이 있다.

23) 리벳의 실험에서 몇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첫째, 자유의지에 대한 생각이 준비전위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실험 중 자유의지에 대한 믿음이 비교적 약한 피실험자들의 경우 준비전위가 더 늦게 나타났는데, 이는 자유의지를 강하게 믿을수록 자발적인 행위에 대한 가능성이 더 열려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리고 둘째, 리벳의 실험은 어떤 의미에서는 자유의지와는 동떨어진 주제라고 할 수 있다. 자유의지 논의에서 행위자는 어떤 ‘근거’에 따라 숙고한 이후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특정한 ‘근거’에 따라 행동하게 된다고 본다. 하지만 피실험자들이 실험과정에서 손가락을 구부린 유일한 근거는 리벳의 ‘지시’였으므로 피실험자들이 선택해야 했던 것은 행동의 ‘방식’이 아닌 ‘시점’ 뿐이었다는 문제가 남는다. 라르스 스펜젠, 『자유를 말하다』, 박세연 역, (엘도라도, 2013), p.60 인용 및 참조. 덧붙여 이 실험이 진행된 것은 1979년이므로 하라리가 주장하는 것처럼 그다지 ‘최신 연구’도 아니다.

24) 라르스 스펜젠, 같은 책, p.61.

25) 과학주의는 과학적 방법을 경험적이고 실증적인 주제뿐 아니라 비경험적이고 가치를 다루는 주제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믿는다. 과학지상주의라고도 하는 이 사상은 과학적 방법론만이 객관적 사실을 깨닫는 유일한 길이고, 그것이 적용되지 않거나 설명하기 어려운 현상은 모두 거짓으로 간주한다.

26) 성기진, <인공지능의 윤리>, https://www.labri.kr/downloads/docs/skj_ai_ethics.pdf (라브리, 2017), p.3.

이해하는 유물론은 인간을 잘 만들어진 기계로 묘사하면서 동물과 다를 바 없는 존재로 정의했다. 이 시점에서 이미 사람들은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하게 되었고, 쉽게 수치를 비교할 수 있는 생산성이나 경제성이 점차 인간의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자리 잡았다. 이런 암울한 환경 속에서도 사람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하라리가 말한 것처럼 인본주의가 ‘인간은 소중하다’는 신념을 마치 심폐소생술 하듯 계속 불어넣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인공지능이 발달하면서 우리의 지능마저 대체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자 인간의 주가가 다시 곤두박질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구글의 미래학자 레이 커즈와일(Ray Kurzweil, 1948 ~)은 2045년에는 컴퓨터가 ‘기술적 특이점(technological singularity)’에 도달하여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드는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서 컴퓨터가 인간과 무관하게 스스로를 개량하게 된다고 주장한다.²⁷⁾ 이 말에는 기계가 사람의 통제를 벗어날 것이고, 반대로 인간은 기계의 통제를 받게 될 거라는 의미가 담겨있다. 더러는 이런 시대가 오면 마침내 인류가 노동에서 해방되어 개인이 정말로 원하는 일을 할 수 있게 될 거라고 기대하기도 한다. 하지만 인간의 가치가 경제적 수치로 환산되는 세상에서 생산성 없는 인간의 삶이 과연 그렇게 행복할지는 의문이다. 인공지능을 두뇌에 접목시켜 우리의 이성과 감정을 통제하게 되는 세상에서는 ‘내가 원하는 일’이라는 순수한 의지적 행동을 떠올리는 것도 불가능할 것이다. 어차피 과학자들이 자유의지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았던가?

데이터주의의 저변에는 컴퓨터가 감정이 없기 때문에 인간이 할 수 없는 완벽한 이성적 판단을 내려줄 거라는 트랜스휴머니즘(transhumanism)²⁸⁾의 기대가 깔려있다. 빅데이터는 모든 것을 알고 있으므로 이를 분석할 줄 아는 인공지능만 개발하면 나에게 맞는 완벽한 배우자와 직장을 결정해줄 것이고, 나아가 도덕적인 판단까지도 대신 내려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인공지능을 대통령으로 추대하면 어떨까? 인공지능의 판단력이 그것이 독재라는 사실을 눈감아줄 수 있을 정도로 뛰어나다면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런데 인공지능은 알고리즘의 집합이고, 알고리즘을 조율하는 가치망(value network: 컴퓨터가 자신이 추구하는 결과를 얻을 확률을 계산하는 방법)은 프로그래머가 입력한 소스코드의 명령을 따른다. 컴퓨터도 결국은 사람이 만든다는 말이다. 인공지능 대통령이 시스템을 설계한 프로그래머의 정치적 성향과 개인적인 이익을 반영하리라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사람들이 인공지능 대통령의 현명한 결정에 박수를 보내는 동안 프로그래머들은 의자에 기대 앉아 조용히 미소 지을 것이다.²⁹⁾

27) Dom Galeon, Christianna Reedy. “Kurzweil Claims That the Singularity Will Happen by 2045”, https://futurism.com/?p=74977&post_type=post (Futurism, 2017-03-15).

28) 트랜스휴머니즘(transhumanism, 초인본주의)은 생명공학이나 유전공학 등의 과학기술을 이용해 인간의 지능적, 신체적 한계를 극복하고 궁극적으로 영생과 신적인 능력을 얻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상이다. 트랜스휴머니스트들은 일단 특이점에 도달하기만 하면 인공지능이 사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줄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들에 따르면 인류는 기후변화나 불평등 해소와 같은 다른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기술적 특이점을 앞당기는 일에 최우선적으로 집중해야 한다. 이 사상은 학문세계보다는 주로 실리콘밸리 컴퓨터 기술자들에 의해 견인되는 독특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29) 인공지능 분야의 오피니언 리더인 팀 오라일리(Tim O'Reilly, 1954 ~)는 그의 책 『WTF? What's The Future?』에서 인공지능을 구성하는 가장 기초적인 단계에서조차 사람의 편견이 개입된다는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예를 들어 현대 경제이론이 프로그래밍 되어있는 인공지능은 경제문제를 결코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이미 입력된 ‘이익 극대화’라는 가치가 편견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Tim O'Reilly, <WTF? What's the Future and Why It's Up to Us>, <http://www.oreilly.com/tim/wtf-book.html>, (O'Reilly Media, 2017). 이 같은 맥락에서 보면 사회에 산적해 있는 문제들이 인간의 지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태도도 일종의 편견일 수 있다. 지능이 높아지면 인간의 이기

“컴퓨터가 사람을 이겼다고 호들갑을 떠는 것은 마라톤 경기에서 자동차가 사람을 이겼다고 신기하게 여기는 것만큼이나 불필요한 일이다. 자동차만큼 빨리 달릴 수 없다고 해서 사람의 가치가 결코 떨어지지 않듯, 인공지능만큼 연산능력이 뛰어나지 못한다고 해서 사람의 가치가 손상을 입는 것도 아니다. 인공지능 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능’이 아니라 ‘인공’이다. 연산능력을 가치 판단의 척도로 삼는 세계관을 따르지 않는다면 인공지능의 발달은 전혀 사람의 위기가 아닌 것이다. 애초에 지능이라는 개념이 가치 평가 개념에 도입된 것이 컴퓨터에 입력하기 위한 수치화 작업이 편리했기 때문임을 기억한다면, 인간성의 본질과 도덕적 책임의 소재를 엉뚱한 곳에서 찾는 위험천만한 오류를 피할 수 있을 것이다.”³⁰⁾³¹⁾

4) 대안의 한계

하라리가 논리를 전개해나가는 방식은 매우 독특하다. 무언가에 도취된 듯 어떤 이론을 한참 설명하고는 사실 완전히 엉터리라거나, 마치 미래가 금방이라도 닥칠 것처럼 어조를 높이다가도 끝에 가서는 자신의 예상이 맞을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한다. ‘미래의 역사’를 풀어나가는 일이 결코 쉽지는 않겠지만, 한편으로는 그의 태도가 무책임하게 느껴진다.

하라리의 주장이 무책임하게 생각되는 가장 큰 이유는 그가 정말 중요한 문제들은 쏙 빼놓고 이야기한다는 점 때문이다. 그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미래는 현생인류인 호모 사피엔스가 호모 테우스로 진화하는 것이다. 그는 새롭게 탄생한 신인류는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더 놀라운 진보를 이룩할 것이며, 어쩌면 더 이상 허구에 의존하지 않는 고차원적 삶을 쟁취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그렇다면 이런 일이 정말로 일어난다고 가정해보자. 대체 달라지는 게 무엇일까? 부는 더 많은 부를 낳아 또 다시 빈부격차를 낳을 것이고, 인공지능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경제구조는 지금보다 훨씬 개선하기 어려워져 가난한 사람은 영원히 가난에 허덕이게 될 것이다. 감정을 조작하고 쾌감을 제공하는 약물은 1960~1970년대 마약열풍과 마찬가지로 사람들을 공허에 빠뜨리고 우리의 건전한 관계를 위협할 것이다. 인간의 뇌를 저장매체에 다운받아 영원한 삶을 추구하더라도 누군가 하드웨어를 파괴하면 그걸로 끝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공지능에 지배받는 사회에서는 우리의 존재론적, 인식론적, 도덕적 딜레마를 더 이상 해결할 길이 없다. 인공지능이 내리는 명령을 그대로 따르기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하라리가 제시하는 신으로 진화한 ‘호모 테우스’의 비참한 현실이다.

하라리의 사상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그의 사상의 밑바탕을 이루는 유물론과 진화론도 인본주의의 산물이라는 사실이다. 그는 인본주의를 비판하면서도 여전히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한다.

심과 폭력성도 과연 사라질 것인가?

30) 성기진, 같은 글, pp.4~9 인용 및 참조.

31) 이 주제와 관련된 흥미로운 사례로 2016년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개발한 ‘테이(Tay)’가 있다. 테이는 10대 소녀를 시뮬레이션 하여 사람들과 대화하는 법을 배워나가는 ‘딥러닝(deep learning: 스스로 학습하는 능력을 갖춘 기계 알고리즘으로 알파고에도 적용되었다)’을 적용한 트위터 계정이었는데, 나치와 히틀러를 찬양하고, 각종 인종차별 및 성차별적인 발언을 일삼는 바람에 공개 후 16시간 만에 강제종료되고 말았다. 물론 그 이면에는 다수의 트위터 사용자들이 테이에게 장난삼아 부적절한 발언을 가르치려는 시도가 있긴 했지만, 옳고 그름을 판별하지 못하는 컴퓨터의 한계와 그 위험성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성기진, 같은 글, p.8 인용 및 참조.

세계를 물질과 자연선택으로 이해하는 유물론과 진화론은 인간을 우주의 중심으로 삼는 인본주의 세계관을 채택할 때 비로소 가능한 것이며, ‘인간이 신으로 진화해야 한다’는 발상이야말로 인본주의의 최대가치에 더없이 부합하는 것이다. 더구나 인본주의가 틀렸다는 하라리의 주장은 인본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는 유물론과 진화론, 그리고 인본주의 생물학과 인본주의 신경학마저도 허구로 만들어버리는 논리적인 모순을 안고 있다. 이처럼 불완전한 세계관을 기반으로 한 그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질 뿐 아니라 무책임하며,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인류의 운명이 비관적인 결말에 이르게 되는 것도 어쩌면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³²⁾

결론

4차 산업혁명은 인간의 육체가 아니라 지능을 대신한다는 점에서 이전의 변화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하라리는 이러한 변화가 인공지능과 생명공학의 발달에서 나타날 것이라고 보고, 앞으로 두 분야가 성장하는 방향에 따라 마침내 인류가 호모 테우스로 진화하거나, 반대로 데이터주의와 함께 역사 속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호모 테우스』에서 그는 이러한 흐름이 역사적인 필연이므로 전 인류가 지혜를 모아 난관을 극복해야 함을 역설하고 있다.

하라리의 주장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준다. 첫째, 역사의 흐름을 세계관이 주도한다고 본다는 점에서 역사를 현상이 아닌 본질로 파악하는 통찰력 있는 시각을 제공했다. 둘째, 인본주의를 비롯한 허구적 신념들의 나약함을 드러내고, 모든 사상은 종교적 이념이라는 신선한 관점을 제시했다. 셋째, 데이터주의를 소개하면서 맹목적인 기술발달의 위험성을 경고해주었다.

반면 『호모 테우스』가 갖는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모든 개념을 허구로 정의함으로써 자신의 주장마저 허구로 만들어버리는 논리적인 모순을 범했다. 둘째, 성경과 인본주의를 비판하면서 적절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셋째, 데이터주의를 경계하면서도 문제는 인간성의 추락이라는 본질을 놓쳤다. 넷째, 대안이 제한적이고 무책임했다.

최근 서점에서 쏟아져 나오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책들은 대체로 ‘앞으로 이런 직종이 유망할 것이니 잘 준비하라’는 식이다. 이렇게 보면 역사와 철학, 그리고 과학을 다루는 유발 하라리의 『호모 테우스』는 확실히 수준이 다르다. 그는 이 책에서 ‘호모 테우스’, ‘데이터교(데이터주의)’와 같은 중요한 단어와 개념을 새롭게 정의했으며, 특히 다양한 분야의 주제들을 유연하게 조화시키는 그의 능력은 가히 이 시대의 지식인이라는 소리를 듣기에 부족함이 없다.

안타깝게도 잘못된 전제는 잘못된 통찰을 낳는 법이다. 『호모 테우스』는 방대한 지식을 모아 강력한 통찰력을 이끌어냈지만, 그 과정은 논리적인 모순과 적절치 못한 자료를 토대로 한 성급한 결론으로 진행되었다. 하라리는 “역사학자들이 과거를 연구하는 것은 그것을 반복하기

32) 물론 『호모 테우스』는 인본주의가 약 300년 전 근대에 이르러 등장한 신흥종교이며, 과학과는 관계가 없다고 주장할 것이다. 하지만 이 책의 저자는 인본주의가 철학적으로는 이미 고대 그리스 이전부터 존재했다는 사실을 마치 잊어버린 듯하다. 지난 약 2천 년간 서구 세계관의 흐름이 성경에서 점차 인본주의로 기우는 양상을 띠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둘이 오래 전부터 팽팽한 관계를 유지해온 경쟁자였음을 기억한다면, 성경적 세계관(신본주의)과 인본주의가 역사의 어느 시점에서 한쪽이 우세할 수는 있을지언정 본질적으로 순차적 과정을 겪는 것은 아니며, 과거와 현재에도 그렇듯 미래에도 계속해서 공존할 것으로 보는 것이 좀 더 타당한 해석일 것으로 생각된다. 과학이 사상과 관계없다는 주장에 대한 비판은 각주 21을 참조할 것.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에서 해방되기 위해서이다”³³⁾라고 외치면서도 정작 인본주의에서 벗어나지도 떠나지도 못하는 자신의 난처한 상황은 해결하지 못했다. 이것은 『호모 데우스』의 한계인 동시에 그의 사상적 배경인 유물론과 진화론이 가질 수밖에 없는 한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가진 대안은 무엇일까? 하나의 완벽한 해답을 제시하기는 어렵겠지만, 아마도 ‘역사적 필연성’이라는 말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역사는 스스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행동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인류세’라는 말에서도 볼 수 있듯이 진정 인류가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거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면, 그러한 영향력에 대한 결과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다. 기술혁신에 대한 비관적인 예측과 반응만큼 심각한 문제는 “기술의 발전을 통제 불가능한 날씨 같은 현상으로 받아들이는 태도다. 비가 오거나 별이 따가우리라는 예보에 우산이나 선글라스를 준비하는 것은 우리가 날씨를 바꿀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술은 날씨와 달리 인간의 산물이다. 따라서 기술의 발전에 수동적으로 대비하는 태도는 적절하지 않다. 그보다는 인공지능의 발전이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예측될 때에는 그 발전의 방향을 조정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 필요”³⁴⁾한 것이다.

2016년 4월, 서울에서 열린 강연에서 하라리는 강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했다. “과학의 가장 큰 장점은 모르는 것을 기꺼이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열린 질문을 위해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³⁵⁾ 이 겸손한 문장이야말로 오늘날 지나치게 많은 정보에 둘러싸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진정 필요한 말이다. 미래가 과거와 현재를 기반으로 한 모습임을 고려한다면, 역사를 바른 세계관으로 바라보아야만 비로소 복잡하게 얽혀있는 미래를 풀어나갈 옳은 실마리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 Yubal Harari. 『Homo Deus(호모 데우스)』, 김명주 역, (김영사, 2017).
- Lars Svendsen. 『Philosophy of Freedom(자유를 말하다)』, 박세연 역, (엘도라도, 2013).
- Dom Galeon, Christianna Reedy. “Kurzweil Claims That the Singularity Will Happen by 2045”, https://futurism.com/?p=74977&post_type=post (Futurism, 2017-03-15).
- Tim O’Reilly. <WTF? What’s the Future and Why It’s Up to Us>, <http://www.oreilly.com/tim/wtf-book.html>, (O’Reilly Media, 2017).
- 성기진. <인공지능의 윤리>, https://www.labri.kr/downloads/docs/skj_ai_ethics.pdf (라브리, 2017).
- 손화철. <알파고에 대해 묻기>, (월드뷰, 2016-06호), pp.25~29.
- 플라톤아카데미. “인류에게 미래는 있는가?”, https://youtu.be/2wLp3krfa_o (2016-06-01).

33) 유발 하라리, 같은 책, p.91.

34) 손화철, <알파고에 대해 묻기>, (월드뷰, 2016-06호), p.28.

35) 플라톤아카데미, “인류에게 미래는 있는가?”, https://youtu.be/2wLp3krfa_o (2016-06-01).